

# 청소년의 사회관계가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적 연구

원지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A Convergent Study Assessing the Effects of Youth's Social Relationships on Career Development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Ji-Young Won  
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 진학 전·후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 또래, 교사와의 사회관계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만족도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모 또는 또래와의 지지적 관계는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 수준과 이후 대학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 밖에, 고등학생 시기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의 경우 대학 진학 후 진로 결정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의 진로발달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융합적 접근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진로발달,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사회관계, 대학생활만족

**Abstract** The study purposed to assess how the career development before and after entering college was related to youth's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s, and teachers on the association between youth's career developmen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ollege liv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utilized the data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ince 2010. The study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areer development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supportive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vel of career identity during high school and later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It was also found that youth who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eachers in high school had a high level of career decision after entering colleg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individualized career education appropriate for youth's career development levels. In addition, convergent approaches to build, maintain and develop positive social relationships could have a lasting and positive impact on youth's career development.

**Key Words** : Career development,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Social relationship, College life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Ji Young Won(jywon@kangnam.ac.kr)

Received May 29, 2020  
Accepted August 20, 2020

Revised July 20, 2020  
Published August 28,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맞물려 청소년기 진로 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 및 사회서비스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청소년 진로발달을 위한 다양한 개입 노력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청소년기 형성·발전된 사회관계가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진로발달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을 구축하고 구조화와 재구조화를 반복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1]. 특히 청소년기는 진로정체감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2]. Ginzberg 외[3]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진로탐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직업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며, 자신의 희망 직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게 된다[4].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진로탐색과 결정의 시기는 청소년기 이후까지로 연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중·고등학교 시기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과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해 진로탐색의 기회가 상실되면서 많은 청소년이 진로결정의 시기를 대학 진학 이후로 유보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학교 진학 이후 진로와 관련된 정체감의 혼란과 대학생활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4].

특히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 오면서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5,6].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대학 신입생들의 주요 스트레스로 학교 적응과도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6]. 대학생 시기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학생활부적응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를 방해하고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는 직업에 대한 불만족과 잦은 이직 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4,7].

이에 본 연구는 대학 진학 전·후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진로발달과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가정 안팎에서 형성된 청소년들의 사회관계에 주목하고, 이러한 사회관계가 청소년기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진로발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청소년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진로발달을 위해 사회관계 차원에서 요구되는 융합적 접근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고등학생 시기 진로발달과 대학 진학 후 진로발달, 그리고 대학생활만족 간의 관계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는 대학 진학 전·후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래의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 간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사회관계가 이러한 역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Fig.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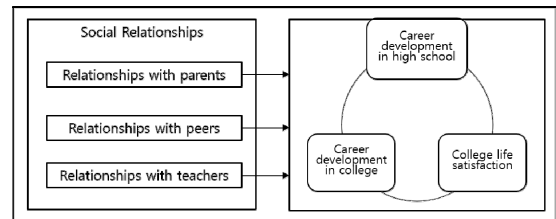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 이론적 배경

### 2.1 진로발달의 개념

진로에 대한 발달론적 입장은 Ginzberg, Ginsburg, Axelrad와 Herma[3]에 의해 소개되었다. 이들은 중년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업선택이 삶의 어느 특정 시기에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에 걸쳐 크고 작은 일련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8]. 이처럼 발달론적 입장에서 진로란 자기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능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개념 중 하나로서 진로정체감이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상을 의미한다[10,11]. 즉, 진로정체감

이 잘 형성된 개인은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진로를 설정하는 데 반해, 진로정체감이 낮은 개인은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10,11]. 따라서 진로결정은 진로정체감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12].

진로 결정 수준은 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직업 선택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3]. 보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는 진로 결정을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확신이나 졸업 후 자신이 종사할 직업 분야를 선택하고 확신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13]. 특히 대학생 시기 진로 결정은 재학 기간 중 진로준비 행동과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을 통해 이들의 진로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2.2 대학 진학과 진로발달

이제까지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인지·정서·사회적 발달이 진행되고, 따라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점차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게 되었다[14-16].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중고등학생 시기의 진로발달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갈수록 연장되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할 때 진로발달 수준이 대학교 진학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결과는 많은 청소년이 오히려 대학교 진학 이후 진로정체감의 혼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시점에 자신의 적성 및 흥미, 능력과 같은 자기 이해와 자신이 추구하는 진로 및 삶의 가치와 같은 내적 요인, 졸업 후 취업 가능성과 사회적 평판, 부모·교사·친구의 권유 등 다양한 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9,17,18]. 그러나 대학입시 위주의 교과과정 운영, 지나친 사교육, 빠른 시기에 안정적인 직업 세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중·고등학생 시기 청소년들이 충분한 자아 탐색의 기회를 얻기는 어려운 실정이다[4]. 결과적으로 많은 청소년은 대학 진학 이후에 진로선택에 있어서 뒤늦은 혼란을 경험하고[19], 전공, 자퇴, 편입, 휴학, 졸업유예 등의 선택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늦추고 있다. 또한, 졸업 이후 취업을 하더라도 조기 퇴사하거나 잦은 이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4,7].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 시기 진로발달의 수준이 대학교 진학 이후 신입생 시기 진로결정 여부 및 대학 생활 만족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2.3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낮은 진로정체감 수준은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20],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 대학생활 적응과도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21-23]. 대학생의 진로 결정은 진로준비를 위한 동기 및 행동과 연결된다[24,25]. 즉, 낮은 진로정체감은 대학 생활에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유발하고 이는 진로준비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교에 재학 하는 동안 졸업 후 진로를 위한 준비가 미흡한 청년들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성취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발달은 대학생활만족은 물론 졸업 이후 노동시장 진입 성과로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 2.4 사회관계와 진로발달

청소년기 진로발달은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과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선행연구들은 진로발달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로 개인적 요인, 가정 및 학교 요인 등을 폭넓게 다루어왔다. 특히, 사회관계를 통한 물질적·정서적 지원은 진로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왔다[22].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관계로 부모, 또래,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관계 요인으로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를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식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평가되었다[26].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지는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26]. 예를 들어 모의 정서적 지지와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7,28],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진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통해 이들의 부모-자녀 관계를 평가하고 부모-자녀 관계가 진로발달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로 하루 중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기 주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황매향 외[8]의 연구에서 청소년기 또래애착은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건강과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30], 진로정체감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31,32].

그 밖에, 선행연구 결과는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기 진로정체감 형성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길[33]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가 높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은경 외[13]의 연구에서도 교사 관계가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생 시기 동안 지지적인 사회관계를 통해 형성된 안정적인 진로정체감은 대학교 진학 후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등학생 시기 사회관계의 경험이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2.5 사회관계와 대학생활

선행연구들은 대학생활 적응과 사회관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 방식은 대학 적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34]. 예를 들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부모의 양육방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5].

또한,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구 및 교수와의 지지적 관계는 대학생활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36,37].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통해 대학교 신입생 시기 친구 및 교수와의 관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고등학생 시기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가 대학 진학 이후까지 지속해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를 포함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대학생활적응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은 대학생활적응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 하나로, 교육현장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삶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더 높은 성취도와 내재동기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38].

## 3. 연구방법

### 3.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중 중1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중1패널의 표본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 총 2,351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시기와 대학 진학 후 진로발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6차와 7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1,828명 중 6차 조사 시기 고등학교 3학년, 7차 조사 시기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응답자 1,307명만을 선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3.2 조사 도구

#### 3.2.1 진로발달

##### 가.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 척도는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등의 진술을 포함하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되었다. 진로정체감은 8개 항목에 대한 응답의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점수화되었다.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0.89이었다.

##### 나. 진로 결정

진로정체감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진로결정은 응답자가 장래 직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3단계로 평가되었다. 장래 직업 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직업이 있다(1)'고 응답한 경우는 '진로 결정'으로,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못했다(3)'라고 응답한 경우는 '진로 미결정'으로 보았으며,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2)'고 응답한 경우는 대략적인 진로의 방향성만 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3.2.2 대학생활만족

대학생활만족 수준은 대학 및 전공(학부, 학과) 만족도 2개 문항과 대학생활 만족도 5개 문항을 포함하는 총 7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1)'에서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4)'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 수준이 높아지도록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84이었다.

### 3.2.3 사회관계

#### 가.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 방식을 활용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긍정적인 방식과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긍정적인 양육방식으로는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이 포함되었고,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는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이 포함되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2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89이었다.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점수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나. 또래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는 또래 애착 척도로 평가되었다. 또래 애착 척도는 모두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등과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또래 애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또래 애착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84이었다.

#### 다. 교사와의 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응답자는 학교 선생님과 교사의 관계를 설명하는 5개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진술에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 등이 포함되었다.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한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 또한 좋은 방식으로 점수화되었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0.84로 나타났다.

###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중1패널 조사의 6차와 7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이 단계 군집 분석(two-step cluster analysis)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과 대학생활만족의 관계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 단계 군집 분석에서는 Shwartz 베이지언 범위 (BIC) 를 활용하여 군집 수가 제시되었으며 군집 분석에 활용된 거리 측도 방식은 로그우도 방식을 이용하였다. 군집 분석을 위한 변수로는 청소년의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진로정체감 수준, 대학교 1학년 시기 진로 결정 수준, 대학교 1학년 시기 대학생활만족 수준이라는 세 개 변수가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사회관계가 이 단계 군집 분석을 통해 확인된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 사이의 관계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 유형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모형의 독립변수에는 사회관계 관련 변수인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포함되었으며, 그 밖에 청소년의 성별이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0을 활용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 분석 결과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Table 1과 같다. 먼저 청소년 대상자들의 성비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700명으로 53.6%를 차지하였고 남학생은 607명으로 46.4%를 차지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진로정체감 수준은 1점에서 4점 사이로 측정되었으며, 그 평균은 3.05, 표준편차는 0.59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 1학년 시기 진로 결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로 427명이 이에 해당하였으며, 대략적인 진로를 정했다는 응답자가 48.6%(635명),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18.7%(345명)이었다. 따라서 약 세 명 중 두 명의 청소년들이 대학교 1학년 시기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1점에서 4점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이 2.95, 표준편차가 0.3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또래 애착 점수의 평균은 3.12, 표준편차는 0.43이었다. 교사와의 관계는 평균 2.96, 표준편차 0.59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관계 중 또래 관계에 대한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활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로서 대학·전공·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점수는 평균 2.85, 표준편차는 0.48이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대학교에서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The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for key variables

Variables	Values	n	(%)			
Gender	Male	607	(46.4)			
	Female	700	(53.6)			
Variables	Time	Values	n	(%)		
Career decision	1 <sup>st</sup> Year College	Concretely determined	427	(32.7)		
		Roughly determined	635	(48.6)		
		Not determined	245	(18.7)		
Variable	Time	Mean	SD	Med.	Min.	Max.
Career identity	3 <sup>rd</sup> Year High school	3.05	0.59	3.00	1.25	4.00
College life satisfaction	1 <sup>st</sup> Year College	2.85	0.48	3.00	1.00	4.00
Parenting Styles	3 <sup>rd</sup> Year High school	2.95	0.39	2.95	1.43	4.00
Peer attachment	3 <sup>rd</sup> Year High school	3.12	0.43	3.00	1.00	4.00
Relationships with school teachers	3 <sup>rd</sup> Year High school	2.96	0.59	3.00	1.00	4.00

#### 4.2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 간의 관계 유형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과 대학교 진학 후 진로 결정, 그리고 대학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 단계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크게 네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때, 분석모형의 평균 silhouette 값은 0.5로 ' 좋음' 수준에 해당하였다. 청소년들의 유형 별 분포를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이 427명, 두 번째 유형이 245명, 세 번째 유형이 471명, 네 번째 유형이 164명으로 최대 군집 대 최소 군집 표본수의 비율은 일반적인 기준인 3보다 낮은 2.87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 간 비교가 가능하였다 (Table 2 참조).

먼저 약 33%를 차지하는 첫 번째 유형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진로정체감 평균은 2.94로 전체 평균 3.05보다 낮았으나 대학교 진학 후 설문에서는 '구체적

으로 정해놓은 직업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진로결정 수준이 높았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는 2.94로 전체 평균 2.8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네 집단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대학생활 만족도이다. 따라서 첫 번째 유형은 대학교 진학 이후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대학생활만족 수준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진로정체감 수준이 2.74로 전체 평균 3.05보다 낮았으며, 대학교 진학 이후 설문에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가 평균 2.74로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대상자 중 36%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세 번째 유형은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진로정체감이 2.72로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대학 진학 후 대략적인 진로의 방향을 정했다고 응답하여 진로정체감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평균 2.79로 전체 평균 2.85보다 낮은 적응 수준을 보였다. 이는 네 집단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네 번째 유형은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진로정체감은 3.77로 네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대학 진학 이후 진로 결정에 있어서 대략적인 진로의 방향성은 정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진로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집단의 평균 대학생활 만족도는 3.00으로 네 집단 중 가장 높은 대학생활 만족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유형별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적응 특성을 요약하면, 먼저 첫 번째 유형은 '대학 진학 후 진로정체감이 향상되고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유형,' 두 번째 유형은 '대학 진학 이후까지 진로정체감이 낮고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유형,' 세 번째 유형은 '낮았던 진로정체감이 대학 진학 후 다소 향상되고 있으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유형,' 네 번째 유형은 '매우 높았던 진로정체감이 대학 진학 후 다소 하락하였으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 진학 전·후의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다수의 청소년은 대학 진학 후 진로정체감 수준의 향상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약 19%의 청소년들은 고등학생 시기의 낮은 진로정체감 수준이 대학 진학 이후까지 정체되었고, 약 12%의 경우는 고등학생 시기 높았던 진로정체감 수준이 대학 진학 후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진로정체감 수준과 대학생활만족 수준 간에서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The Result of career development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type classification using two-step cluster analysis

		Clusters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n		427	245	471	164
(%)		(32.7)	(18.7)	(36.0)	(12.5)
Career identity in 3 <sup>rd</sup> Year High school	Mean	3.31	2.74	2.72	3.77
	Median	3.25	2.75	2.75	3.87
	Q <sub>1</sub>	2.88	2.25	2.50	3.62
	Q <sub>3</sub>	3.75	3.00	3.00	3.99
Career Decision in 1 <sup>st</sup> Year College		Concretely determined	Not determined	Roughly determined	Roughly determined
Mean		2.94	2.74	2.79	3.00
College life satisfaction in 1 <sup>st</sup> Year College	Median	3.00	2.86	2.86	3.00
	Q <sub>1</sub>	2.57	2.43	2.57	2.72
	Q <sub>3</sub>	3.14	3.00	3.00	3.28
	Characteristics of Clusters		Mid level of career identity (in high school) + Concretely determining career (in college) + High level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Low level of career identity (in high school) + Not determining career + Low level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Low level of career identity (in high school) + Roughly determining career (in college) + Low level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Types of Career development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Improvement in career identity and satisfactory college life'	'Low career identity and unsatisfactory college life'	'Slightly upward mobility of low career identity and unsatisfactory college life'	'Slightly downward mobility of high career identity and satisfactory college life'

### 4.3 사회관계가 진로발달과 대학생활만족 유형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관계를 진로발달 및 대학생활만족 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잠재적 변인으로 보고 이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때 종속변수인 진로발달 및 대학생활만족 유형의 참조그룹을 (reference group) 낮은 진로정체감이 대학 진학 이후까지 정체되고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두 번째 유형(Cluster 2)으로 정하고 다른 유형들이 두 번째 유형(Cluster 2)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이 독립변수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모두 포함한 경우의 -2 로그우도 값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한 결과, 그 유의확률은 0.001 미만으로 나타났다( $X^2(df)=92.24(12), p<0.001$ ). 따라서 본 연구모형이 진로발달 및 대학생활만족 유형을 예측하는데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관계 변인들은 진로발달 및 대학생활만족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참조그룹인 두 번째 유형(Cluster 2)과 첫 번째 유형(Cluster 1)을 비교해 보면,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한 후,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와의 관계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진로정체감과 대학생활만족 수준이 모두 낮은 두 번째 유형(Cluster 2)보다 진로정체감 향상과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특성으로 하는 첫 번째 유형(Cluster 1)에 속할 확률은 약 88%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또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두 번째 유형(Cluster 2) 보다 첫 번째 유형(Cluster 1)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또래 애착 수준이 1점 향상될 때마다 청소년들이 두 번째 유형(Cluster 2)보다 첫 번째 유형(Cluster 1)에 속할 확률이 약 78% 높아졌다.

다음으로 교사와의 관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 척도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청소년이 두 번째 유형(Cluster 2) 보다 첫 번째 유형(Cluster 1)에 속할 확률은 37% 증가하였다. 이는 고등학생 시기 교사와의

Table 3.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on the types of career development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Cluster 1				Cluster 3				Cluster 4			
	B	SE	WaldX <sup>2</sup>	Exp(B)	B	SE	WaldX <sup>2</sup>	Exp(B)	B	SE	WaldX <sup>2</sup>	Exp(B)
(Constant)	-4.25	0.80	28.23***	-	-0.14	0.80	0.03	-	-6.84	0.99	47.76***	-
Gender	0.44	0.16	7.07**	1.55	0.36	0.16	5.17*	1.44	0.26	0.21	1.63	1.30
Parenting Styles	0.63	0.23	7.39**	1.88	0.14	0.23	0.40	1.15	0.86	0.29	8.71**	2.36
Peer attachment	0.58	0.21	7.42**	1.78	0.08	0.20	0.16	1.09	0.97	0.27	13.37***	2.65
Relationships with teachers	0.32	0.15	4.37*	1.37	-0.02	0.14	0.02	0.98	0.24	0.19	1.58	1.27
	Cox & Snell		0.07									
Pseudo R-Square	Nagelkerke		0.07									
	McFadden		0.03									
Goodness-of-Fit	intercept only		-2LL = 3210.45									
	Final		-2LL = 3118.21									
	X <sup>2</sup> (df)		92.24(12)***									

\*p&lt;0.05, \*\*p&lt;0.01, \*\*\*p&lt;0.001

긍정적인 관계가 대학 진학 후 진로정체감의 향상과 대학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두 번째 유형(Cluster 2)과 비교하여 첫 번째 유형(Cluster 1)에 포함될 확률이 더 높았다.

둘째, 낮은 진로정체감과 낮은 대학생활만족 수준을 특성으로 하는 두 번째 유형(Cluster 2)과 대학생활 만족도는 낮지만, 진로정체감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세 번째 유형(Cluster 3)은 사회관계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유형(Cluster 2)과 세 번째 유형(Cluster 3)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성별로 남학생과 비교하여 여학생의 경우 두 번째 유형(Cluster 2)보다 세 번째 유형(Cluster 3)에 속할 가능성이 약 4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Cluster 2)과 세 번째 유형(Cluster 3)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자들이 대학 진학 후 진로정체감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대학 진학 후 진로정체감의 향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진로정체감과 대학생활 만족도가 모두 낮은 두 번째 유형(Cluster 2)과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고등학생 시기 높았던 진로정체감이 대학 진학 후 다소 저하되는 경험을 한 네 번째 유형(Cluster 4)을 비교한 결과,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애착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 한 후, 부모와의 관계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청소년 자녀가 두 번째 유형(Cluster 2)과 비교하여 네 번째 유형(Cluster 4)에 속할 확률은 2.4배 증가하였다. 또한, 또래

애착 점수가 1점 향상될 때, 두 번째 유형(Cluster 2)과 비교하여 네 번째 유형(Cluster 4)에 속할 가능성은 2.7배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리고 또래와의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이 높고 이후 대학생활 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 진학 전·후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 또래, 교사와의 사회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 수준과 대학 진학 후 진로 결정 수준을 통해 대학 진학 전·후 진로 변화를 살펴본 결과, 대학 진학 후 진로정체감 수준이 고등학생 시기와 비교하여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이 성숙함에 따라 진로정체감이 점차 확고하게 형성되고 구체적인 진로 결정에 이르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14-16]. 그러나 약 30%의 청소년들의 경우 낮은 진로정체감이 대학 진학 이후까지 정체되거나 오히려 높았던 진로정체감이 대학 진학 후 저하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대학 및 학과 또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대학 생활에도 원만히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전공만족도는 물론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수준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사회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리고 또래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고등학생 시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고,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정적이고 친밀한 사회관계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8,31-33,39].

넷째, 고등학생 시기 교사와의 관계는 대학 진학 후 진로결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를 보면, 교사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관심을 제공하는 대상으로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진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3].

다섯째로,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대학 진학 후 진로정체감의 향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등학생 시기 낮은 진로정체감 수준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 후 대략적인 진로결정에 이르거나, 중간 정도의 진로정체감 수준을 보였던 청소년이 대학 진학 후 구체적 진로결정에 이른 경우를 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결정에 있어서 유의한 성별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24]와 남성이 여성보다[40,41], 혹은 여성이 남성보다[42] 높은 진로결정 수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에서 나타나는 성별의 차이가 단순히 한 시점에서 결정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시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이제까지 다수의 연구들은 진로발달 수준별 대학생생활적응의 평균값 비교를 통해 진로발달과 대학생생활 적응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의 진로발달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생 중 대략적인 진로는 결정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진로 결정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진로 결정의 혼란은 일시적인 변화과정일 수도 있고, 지속적인 진로발달의 정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진로발달 수준을 일회성 조사를 통해 획일화하여 판단하기

보다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화된 개입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접근으로는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노동시장 진입에 유의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대학생 시기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참여도와 대학교의 진로 관련 상담과 지원제도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설명하는 잠재적 변인이 될 수 있다[43].

둘째,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 수준은 대학 진학 후 학교생활 만족 및 적응 수준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 낮은 진로정체감이 대학 진학 후 진로 미결정으로 연결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등학생 시기 다양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대학 진학 이후 진로 결정 및 학교생활 적응, 나아가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까지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형성·발전된 사회관계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의 진로교육은 진로와 관련된 심리적 변화나 학업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학문 간 융합을 통한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그 대상을 청소년기 형성·유지·발전된 사회관계로 확대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 과정과 달리 대학생은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청년 고용의 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융합적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학 진학 전·후의 진로정체감 변화와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관계라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융합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7차 조사의 경우 진로정체감 척도 문항이 설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진학 전·후 진로정체감의 실제 변화량을 통해 진로발달의 추이를 측정하지 못하고 진로 결정이라는 간접적 지표를 활용하여 그 변화의 방향성을 추정하였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고등학생 시기 형성된 진로정체감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대학생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관계를 세분화된 연구모형을 통해 적극적

으로 검증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의 조사 시기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와 대학교 1학년 시기로 한정되어 있어 대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변화양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양상이 학교생활은 물론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종단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대학교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청소년기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관계의 형성 및 발전을 돕는 구체적인 진로발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필요가 있겠다.

## REFERENCES

- [1] E. J. Porfeli & B. Lee. (2012). Career development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134, 11-22.
- [2] E. Crocetti & M. Meeus. (2015). The identity statuses: Strength of a person-centered approach. In K. C. Mclean & M. Syled. (Eds.), *The Oxford Handbook of Identity Development* (pp. 97-11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3] E. Ginzberg, S. W. Ginsburg, S. Axelrad & J. L. Herma.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4] H. G. Kang, J. N. Song, S. J. Jung & S. H. Yi. (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level in early adolescence and university-major satisfaction on identity developmental trajectori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8(3), 57-88.
- [5] S. K. Kim. (2003). Life Stress in Freshman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2), 215-237.
- [6] K. H. Yoo & J. K. Kim. (2016). A Review Study on Adjustment of College Freshmen for Suggesting Adaptation Program.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8), 580-591.
- [7] J. C. Lee & A. J. Hong. (2012). Exploring factors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employabil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3), 177-206.
- [8] M. H. Hwang, H. C. Choi & H. J. Lim. (2016).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3), 195-220.
- [9] Y. Son & S. Lee. (2019). The analysis of choice of university and major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to career identity by using the latent transition analysi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2(3), 139-157.
- [10] J. L. Holland & J. E. Holland.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11] J. K. Lee. (2006).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in the third grade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Psychology*, 20(3), 571-586.
- [12] I. S. Kim, M. J. Son & H. G. Park. (2017). The effects of dysfunctional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2), 302-312.
- [13] E. Lee, S. Oh & H. Kwak. (2019). Longitudinal study among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of adolescent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32(4), 307-329.
- [14] H. J. Shin & M. H. Lee. (2011).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on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s: effect on stress, aggression,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139-161.
- [15] Y. K. Au. (2008). Effect of school stress and melancholy disposition on adolescences learning flow: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perspectiv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9(3), 97-117.
- [16] M. H. Jo, H. Y. Lee & H. W. Lee. (2013). Longitudinal change and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velopment,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2), 91-112.
- [17] E. S. Kim. (2015).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job satisfaction by means of major selection criteria of college graduat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8(3), 85-101.
- [18] H. Jung & A. Cho.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university/major selection factor latent profile analysis (LPA) and university satisfaction leve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1(1), 1-20.
- [19] D. Y. Lee, I. H. Kim & T. Y. Go. (2011). A study on the career consciousness and the recognition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s in local national university.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2), 41-68.
- [20] K. M. Jang. (2005).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1), 185-196.
- [21] A. R. Nam & H. Jung. (2012). The Study on the adaptation to college life by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indecision.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0(3), 27-37.

- [22] E. M. Lim, M. S. Song & S. J. Lee. (2011).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major transition preparation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4), 1-20.
- [23] E. S. Jung & J. H. Ha. (2019).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flexibility, life adaptation and depression on university students: Verification of medication effect of career indeci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6), 25-50.
- [24] H. S. Kim (2018).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2), 251-262.
- [25] J. Y. Lee. (2017). The effect of the satisfaction with major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airline service: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2year and 4year colleg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4), 207-218. DOI: 10.15207/JKCS.2017.8.4.207
- [26] Y. J. Hong & M. K. Lee. (2014). Effect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on anxiety, interpersonal sensitivity and depression: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0), 445-474.
- [27] C. H. Yoon. (2015).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relation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identity: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4), 129-154.
- [28] Y. J. Kwon.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delinqu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9, 177-204.
- [29] E. Jung & D. Ahn. (2018). Influence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 support on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1(2), 171-192.
- [30] D. E. Felsman & D. L. Blustein. (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 [31] E. S. Moon. (2015).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er attachment, ego-identity, and career identity influencing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The Korea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2(1), 21-35.
- [32] S. J. Kwon, J. R. Park & J. Y. Kim. (2017). Influence of peer attachment on career identity of adolescents: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justment.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3(2), 29-51.
- [33] S. K. Lee. (2006). Korean high school students' vocational identity and school related variabl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3), 613-627.
- [34] Y. Cho & I. Oh. (2019). The relation of life goal types and life satisfactions depending on perceived types of parenting style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1), 1327-1346.
- [35] S. J. Park & S. R. Choi. (2019). The effect of parenting styles on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The mediating effect of dependency on the smartphone in the era of fusion and converge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6), 121-129. DOI: 10.22156/CS4SMB.2019.9.6.121
- [36] S. M. Park, J. Y. Park & P. G. Kim. (2018).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tress on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s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9), 684-695.
- [37] J. Y. Song. (2017).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freshmen's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2), 335-345.
- [38] M. J. Park, Y. L. Ham & D. N. Oh. (2012). Levels and their Correlations of decision-making-competency, adjustment to college life,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in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4), 327-337.
- [39] M. R. Kim & S. J. Han. (2018). The effects of personal, social factors and school career experience on high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9), 399-405. DOI: 10.15207/JKCS.2018.9.9.399
- [40] B. W. Westbrook, J. O. Cutts, S. S. Madison & M. A. Arcia. (1980). The validity of Crites' model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49-281.
- [41] M. S. Min, H. R. Hue & H. M. Kim. (2002).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Tasks of the Colleges' support for the Transi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to the World of Jobs*.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42] K. M. Taylor & J. Pompa. (1990). An examination for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1), 17-31.
- [43] C. Park. (2018).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articipation of college students on labor market performance.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18(4), 51-75.

원 지 영(Ji-Young Won)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 2003년 6월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08년 12월 : 시카고대학교 사회서비스행정대학원 (문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청소년진로발달, 청년 고용, 사회관계망
- E-Mail : jywon@kangnam.ac.kr